

김영란법 후 직장인 74% 식사접대 횟수 감소

농촌경제연구원 설문... 뒤송송 시국에 연말 회식 간소화
주점 카드 결제·건수 감소...9시 이전 사용 57%로 증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과 촛불 정국 탓에 직장인들이 회식이 많은 연말에도, 지갑을 닫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국이 어수선한 탓에 마음 놓고 술을 마시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25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직장인 3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직장인의 식사 등 소비행태 변화 설문조사'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후 직장인의 73.6%는 식사 접대 횟수가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또 직장인 1인당 1회 식사 접대 비용이

3만원 이상인 비율은 법 시행 전 70.6%에서 시행 후 24.9%로 낮아졌다.

대신, 직장인들은 가족과 함께 차분한 식사를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37.3%는 직장 회식과 외부 식사를 줄이고 가족과의 식사를 선택했고, 접대가 감소하면서 지출이 늘어난 것은 간편대용식·즉석식품(19.3%), 빵·떡·과자(17.3%) 등 간편한 식품 종류였다.

송년회도 줄어드는 추세다.

25일 BC카드가 지난 11월 2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BC카드 사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차킨집이나 호프집, 소주방 등 주

점 업종에서의 카드사용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6% 줄었고 결제 건수도 10.4% 줄었다.

개인카드 이용액은 9.1%, 결제 건수는 10.7% 각각 감소했고, 법인카드도 7.3%와 8.6% 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모임은 물론 회식 등의 술자리가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한정식집과 일식 횡집, 중식당, 서양음식점 등이 포함된 요식업종에서의 카드 결제 건수는 4.1% 늘었지만 이용액은 0.5% 줄었다.

결제 건당 이용액은 4만5014원에서 4만3057원으로 4.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고가 음식점으로 분류되는 한정식집(-17.9%)이나 갈비 전문점(-14.0%), 일식 횡집(-4.7%) 등에서 카드 이용액이 큰 폭으로 줄었다. 반면 중국 음식점은 4.

9% 증가했다.

결제 시간도 빨라지고 있다. 오후 7시부터 자정까지를 기준으로 오후 9시 이전에 결제한 비중은 2014년 53.9%에서 2015년 55.8%, 2016년 56.9%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형우 전문연구원 "김영란법 적용대상자 이외의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선물·식사·경조사비 등을 주고받는 문화가 아예 사라지거나 만만 자체를 외면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자제하는 분위기가 늘고 있다"면서 "이에 농수산물 판매를 위해서는 저렴한 중저등급 한우에 대해 1인가구용 소포장, 간편식 소비 트렌드에 맞는 상품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현대기아차 국내 판매
10대중 3대는 레저용
카니발·싼타페 등 4년새 68% ↑

현대·기아차가 올해 국내에서 판매한 차량 10대 중 3대는 RV(레저용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올해 들어 11월까지 국내에서 107만 1881대를 팔았다. 이중 RV는 32%인 34만3273대다.

현대·기아차 RV 모델의 국내판매는 2011년 22만5664대에서 지난해 37만8114대로 늘었다. 불과 4년 만에 67.6%나 급증한 것이다. 내수 둔화 속에서도 올 한해 RV 판매량은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체 국내판매 차량 중 RV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1년 19.2%에서 5년 사이에 12.8%포인트 뛰었다.

모델별로는 현대차 싼타페와 기아차 쏘렌토, 카니발의 판매 증가가 두드러졌다.

싼타페는 신행 모델이 출시된 2012년에 전년 대비 162% 증가한 6만8382대가 판매됐고, 2015년에는 10만대에 육박하는 9만2928대의 판매 실적을 올렸다. 올해는 작년보다 부진하지만 11월까지 6만 8299대가 팔렸다.

기아차 쏘렌토와 카니발도 지난해 연간 판매량이 5년 전인 2011년과 비교해 각각 91.5%, 149.4% 늘어난 7만1567대, 6만 2734대로 집계됐다. 올해는 11월까지 쏘렌토가 7만3423대, 카니발이 6만146대 판매됐다.

기아차는 또 올해 국내 최초 소형 하이브리드 SUV인 니로를 선보여 11월까지 1만7081대의 판매고를 올렸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대기업 일자리 4년 반 만에 최소

2개월 연속 3만명대

300인 이상 대기업의 일자리 증가 폭이 4년 반 만에 최소 수준으로 떨어졌다. 안정적이고 급여가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그다지 늘지 않으면서 구직자들은 실업 수렁에 빠지거나 질 나쁜 일자리로 떠밀리고 있다.

25일 통계청에 따르면 11월 기준 300인 이상 기업의 취업자는 247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7000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5~299인 업체(25만6000명)나 1~4인 업체(4만6000명)보다 증가 폭이 작았다.

300인 이상 기업 취업자는 전월인 10월(243만8천명)에도 3만6000명 늘어나는 등 2개월 연속 3만명대 증가에 머물렀다.

이같은 증가 폭은 8000명이 감소한 2012년 5월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지난해 11월 대기업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7만명 급증했다. 올해 6월까지도 14만2000명 늘어나는 등 10만명대 증가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7월 8만9000명으로 급감한 뒤 8월 4만6000명, 9월 4만5000명으로 꺾

였고 이후에도 내리막길을 걸었다.

대기업 취업자 증가세 둔화는 산업 구조조정과 경기 불황이 겹친 탓이다. 국내 대기업의 주력 산업 중 조선업, 해운업 등은 구조조정으로 몸집을 줄이는 상황이다. 최근처럼 미래가 불확실한 대신임사원을 채용하고 이후 1~2년간 교육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대기업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투자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채용을 줄이거나 청년 신입 직원을 대규모로 뽑는 대신 당장 생산활동에 투입할 수 있는 경력직을 일부 채용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난 9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10개 대가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에 달하는 48.6%가 올해 신입과 경력직을 포함한 자사의 신규 채용 규모가 작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대기업 일자리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질 좋은 일자리도 덩달아 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노동시장에서 는 여전히 기업규모에 따라 임금, 복지 수준이 현격하게 차이를 보인다.

/연합뉴스

금강보청기 새 광고모델 탤런트 김성환씨



보청기 전문 브랜드 금강보청기(대표 선정진)가 탤런트 겸 가수 김성환<사진 오른쪽>씨를 2017년 광고모델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강보청기의 새 모델이 된 김성환씨는 1970년 데뷔 이후 수많은 드라마에서 개성 있는 연기를 선보였으며, 현재 서울교통방송에서 라디오 진행을 맡고 있다. 최근에는 노래 '묻지마세요'로 성인 가요 순위 1위에 오르는 등 가수 김성환으로 제 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금강보청기는 세계적인 보청기 제조사인 미국 스타키그룹의 보청기를 전문적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국내 최대 110여 곳의 센터와 지점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사후관리가 가능한 탄탄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우 난청인을 위한 '사랑의 청춘 돌려드리기'의 일환으로 국내외 322대의 보청기를 기증하며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금강보청기 관계자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금강보청기의 새 광고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인간미 넘치는 모습으로 사랑받는 김성환씨와 함께 고객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

로또복권						(제734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6	16	37	38	41	45	18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1,949,395,500		9	
2	5개숫자+보너스 숫자일치		81,224,813		36	
3	5개 숫자일치		1,663,307		1,758	
4	4개 숫자일치		50,000		92,514	
5	3개 숫자일치		5,000		1,542,069	

치솟는 환율...원·달러 1200원 넘어서

美 금리 인상·경기부양 전망 영향...외국인 자금 유출 우려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 달러 가치가 치솟으면서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선을 넘어서는 등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외환 당국이 환율 상승을 무작정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내년 2분기에 1300원 선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는 등 추가 상승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원·달러 환율 상승은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단기간의 급격한 상승은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데다 외국인 자금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어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지난 23일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달

러당 3.9원 오른 1203.0원으로 장을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 3월 10일(1203.5원) 이후 9개월여 만에 최고치다.

전날 원·달러 환율은 올해 3월 이후 처음으로 장중 1,200원을 돌파했고 이날은 종가 기준으로도 1,200원선을 넘어섰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하기 직전인 지난 14일부터 8거래일간 36원 올랐다. 달러당 1167원(13일 종가)이었던 원·달러 환율은 1200원대가 됐다. 원화 가치가 3.1% 떨어진 셈이다. 원·달러 환율이 급격히 오르는 배경에는 달러 강세가 자리 잡고 있다.

기본적으로 환율 상승은 우리 거시경제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다.

환율이 오르면 기업 수출에는 호재로 작용하지만 수입물품 가격을 높여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는 부작용도 있다.

예를 들어 환율이 달러당 1100원일 때 수출하던 국내 기업은 1달러어치의 물건을 팔면 1100원을 받지만, 환율이 달러당 1200원으로 올라가면 1달러를 팔아도 1200원을 받게 돼 수익성이 개선된다.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이 1% 상승하면 한국 제조업 내 상장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0.05%포인트(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출 증대 효과는 예전만 못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상 표창 · 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신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리21가든 상가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0-3600-9955

메리트
내외명
500m

대산프리모가발

메디컬센터
순창터미널 맞은편

분양 및 임대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악곡, 제과점, 편의점 기타

내과, 검진센터

안과, 피부·비뇨기과

치과,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한방의학과

물리치료실

대지면적 : 1,057㎡ 지상6층, 주차장 27대

● 1층 : 101호 129.5㎡(구 39평), 102호 137.6㎡(구 41평)
103호 83.4㎡(구 25평), 104호 129.5㎡(구 39평)

● 2층 : 201호 240㎡(구 72평), 202호 240㎡(구 72평)

● 3층 ~ 6층 : 2층과 동일

주소 |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 213-5번지

(주)우원 (주)태우종합건설
(063) 653-7806

분양문의
010-4922-3317